

교회 목표

신앙의 애매
천국입문 양성
민족 문화와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막 9:29)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기도회

금주 화요일(24일) 저녁 7시 30분 갈릴리홀

총현 전도대 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15분 베다니홀

귀신들린 아이 때문에 혼이 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효능이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됩니다(삼상 12:23). 또한 기도는 우리의 힘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알뜰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힘을 포기하는 기도에는 나는 주님에 의해 존재하며 주님의 뜻으로 사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시간은 자신을 부인(마 16:24)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의 믿음을 가지고 금주 24일(화) 저녁 7시 30분부터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24시간 연속 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든 교회 사역의 원천적인 힘이 되는 기도를 매일 365일 끊임 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 총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는 일부 직분자들만의 몫이 아닌 전 성도가 함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위임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약 5:15). 총현의 5대 목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며, 특별히 선교와 전도가 성령의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롬 1:9, 골 4:3). 총현 복자편이 십자가 복음으로 전파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빌립보 4:7).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이번 기도회에 참석하기 전 모든 직분자들은 귀신들린 아이에게 혼이 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행 8:22)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회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사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골 4:3).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아닌 이미 ‘죽어있는’(엡 2:1)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총현 교회 전도의 선봉에 있는 총현 전도대는 기도와 전도의 균형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기 전에 전도대원들은 기도를 통해 이미 영적인 승리를 맛본 채 ‘죽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도의 때입니다. 금주 수요일(25일)에 도 변함없이 오후 1시 15분에 베다니 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까지 계속될 전도와 기도에 전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성령 속의 예수 그리스도(6)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성경은 인류의 구속자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3장 15 절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인류의 구속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길을 보였다고(창 12:1-3). 다윗에게서 태어날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나라에 관한 약속을 하심으로(삼하 7:12-16) 그리스도의 나라와 왕위의 성격을 증거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와 왕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짐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등 고난 반시에는 종로로서의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사 53:7).

매가 차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다고(갈 4:4).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1:1). 특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되, 그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건원하여 이 땅에서 대평강대를 주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야담의 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서

질병이 치유 받으며, 앓은병이 가 일어나며, 소경이 눈뜨는 등 육신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 낮 사흘을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사흘 간 땅 속에 계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표적이었습니다(마 12:38-40). 이를 위하여 고통과 고난을 지심으로써 이 땅의 영혼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강림을 체험한 초대교회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행 2:36:4:10:7:52:10:39-40:13:27-28). 이전에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걸림돌이었으나 16:22:20:20-22:26:9:44-45:18:31-34),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영광을 원하였으나(마 20:30-22),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겼지만, 오순절 후에 그들은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근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골 1:20). 그리하여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자수를 받는다 고 외쳤으며(골 1:8),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선포했습니다(고전 2:2).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과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지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베후 3:12-13). ‘오실 그리스도,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요 5:38).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골 2:2) 구세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라”(베후 1:3).

(정현민 목사)

OBEYING THE TRUTH

“You were running well; who hindered you from obeying the truth?”
(Galatians 5:7)

In today's Bible verse, Paul questions the Galatian church about their faulty ways. When he first came to them and preached the gospel, they immediately accepted the salvation God's grace makes available through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They believed in and experienced righteous living. Even though he was ill on his former visit, they had not scorned him but had treated him as Christ had treated them (Gal. 4:13-15). With such great past relations, he now wants to know who changed their minds about the wonderful truth he shared with them. The Galatian church knew and witnessed God's powerful secret, which is,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Rm. 1:17). They knew the power and the truth, "For if we died with Him, we will also live with Him" (2 Tim. 2:11). They should have been diligent to present themselves approved to God as workers who do not need to be ashamed, accurately handling the word of truth, but they did not. They turned away from the truth, which is why Paul questions them in this letter.

The Galatian church had deserted grace to retreat into law because of certain Jewish Christians (the Judaizers) who were teaching that merit-salvation through obedience to the law of Moses was necessary. These false teachers were misrepresenting the gospel of Christ. Paul responds, "I am amazed that you are so quickly deserting Him who called you by the grace of Christ, for a different gospel; which is really not another; only there are some who are disturbing you and want to distort the gospel of Christ. But even if we, or an angel from heaven, should preach to you a gospel contrary to what we have preached to you, he is to be accursed" (Gal. 1:6-8). Paul explained to them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plus nothing, and of sanctification by the Holy Spirit, not the Moses' Law. His response, given in the full apostolic authority received from Christ, forcefully negates all theologies that teach salvation by faith plus human effort.

In today's churches, there are many false teachers, both pastors and congregation members, who prefer fame to preaching the gospel. Jesus warns,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arise and will show great signs and wonders, so as to mislead, if possible, even the elect" (Mt. 24:24). We are living in a time where it is difficult to find a true church because so many people want the church to be fun and entertaining, not holy and reverent. Paul told the Galatian church,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means anything, but faith working through love" (Gal. 5:6). The Galatian church was growing with blessings until the Judaizers started talking about their heritage, the importance of Moses' Law over Jesus, and the need for circumcision. They were naturally interested in the history, and unfortunately easily swayed from the gospel. The gospel is all about the love of God, the death of Jesus on the cross for us because we

could not keep His law, or pay the price for our failure. Paul explains, "nevertheless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even we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so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since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will be justified" (Gal. 2:16). Please be careful of false teachers. Just because someone is famous, a good oral speaker, or great leader does not mean they know and preach Jesus.

Besides false teachers, when Christians start fighting and arguing they easily lead themselves away from the cross. They begin to think about other things and start disobeying the gospel. Paul warns, "But if you bite and devour one another, take care that you are not consumed by one another" (Gal. 5:15). Christians who practice fighting love the world, and end up forgetting about Jesus, the cross, and God's love. Their fighting displays their lack of love. John 13:35 says,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Paul told the Galatian church, "For the whole Law is fulfilled in one word, in the statemen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Gal. 5:14). Even the primitive church started arguing over who was better; Paul or Apollos (see 1 Cor. 3:4). James 3:16 sums up the situation, "For where jealousy and selfish ambition exist, there is disorder and every evil thing." Remember, "wisdom from above is first pure, then peaceable, gentle, reasonable, full of mercy and good fruits, unwavering, without hypocrisy. And the seed whose fruit is righteousness is sown in peace by those who make peace" (Jas. 3:17-18).

Desires of the flesh also hinder you from obeying the truth. You must follow the Holy Spirit, not your way of thinking. Galatians 5:17 says, "For the flesh sets its desi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in opposition to one another, so that you may not do the things that you please." The Holy Spirit guides and directs your life. You do not live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Your body always fights against the Spirit, and if you give in you will always lose. You must listen to the Holy Spirit, then you will obey the truth and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will grow in you,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Gal. 5:22-23). I hope you have this fruit in your life, for there is nothing more enjoyable.

My dear friend, is there anyone or anything hindering you from obeying the truth? Please return to Jesus Christ and believe God's Word. Repent of your wrong doings, and deny yourself, so that the Holy Spirit can lead you to follow Jesus Christ through your faith. Amen. 🙏

진리에 순종하라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 5:7)



김성관 목사

누가 너희를 막아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잘못된 길로 돌아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였다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진실로 믿었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번 방문 때 바울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대했던 것과 같이 바울을 대했습니다(갈 4:13-15). 이처럼 복음에 온전히 순종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누가 복음의 진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라는 진리를 몸소 알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쁘다 이 말이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딤후 2:11)라는 말에 담긴 능력과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인정한 일꾼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살기 위해 부지런히 힘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에 불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를 내린지고 율법으로 돌아선 것은 유대율법의 몇몇 신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흐려놓았습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후 하느니라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나”(갈 1:6-8). 바울은 구원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의 모든 권한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어떤 가르침도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일 수도, 혹은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인기를 얻기에 더 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4). 우리는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재미와 오락적인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갈 5:6). 유대율신 신자들이 자신들의 유전에 대해 말하기 전까지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율신 신자들이 예수님보다 모세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할례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당연히 전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너무 쉽게 복음에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죄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설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십시오. 유명하고, 인분이 좋으며, 뛰어난 지도력을 지녔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툼과 논쟁들

거짓 교사 외에도 신자들이 다툼과 논쟁을 일삼다 보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다툼과 논쟁에 빠진 신자들은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고 복음에 불순종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 5:15). 다투기를 좋아하는 신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다투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나니”(갈 5:14). 초대 교회조차도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나은지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고전 3:4). 야고보서 3장 16절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습니다. “지기와 다움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 3:17,18).

육체의 욕심들

육체의 욕심 역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든지 성령을 거스려 싸웁니다. 육신에게 지면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기도하십시오. 확신 하건대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장로 칼럼

십자가로 거듭나는 30, 40대 젊은 교구 세대를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김규형 (4교구장)

4교구는 사초동, 반포동, 방배동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구입니다. 2005년도에는 12개 지역으로 늘었고 14개 남성구역과 34개의 여성구역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구원들이 교회의 공집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봉사하며 순종 잘 하고 복을 안에서 화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구입니다. 4교구는 급변도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 게로(눅 19:10)라는 주제 하에 전체 4교구 식구가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장으로 사랑하여 교회로 전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 명이 한 명 이상의 영혼을 전도하자고 권면하였으며, 한 달에 한번씩 전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주별 전도에 120명의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4교구 지역의 일대일 전도를 독려하다보니 4교구 지역에 있는 새가족 식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곧바로 구역모임의 활성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역장들을 중심으로 준비하여 단기 선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장을 팀장으로 하는 12개 팀과 3개 팀이 준비 중에 있으며 단기 선교 훈련과 언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남성구역 모임이 주마다 새 세대로 드러지는 모임이 되도록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20명 이상의 모임으로 정착될 것이며 14개의 남성구역이 20개로 확대 개편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구에 속한 남성들을 찾아서 구역장들이 기도하고 편지하며 전화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성구역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영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아내들이 신앙이 연합한 남성들을 권면하여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30, 40대의 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관찰로 거듭나도록 관찰들의 양육과 말씀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집중하려고 한 이유는 관찰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구역장을 이어 구역을 이끌어갈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30, 40대의 성도들에게 관심이 집중할 때가 지금입니다.

30, 40대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이들이 교회와 교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도록, 가르치며 돕고 있습니다. 둘째, 분기별로 관찰 영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며,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방법, 구역을 어떻게 돌보아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 30, 40대의 전도의 날을 만들어 교구 전체 성도가 이 연령층의 성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미래에 교구를 이끌 어 갈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구 모임 시에, 1부에서는 교구목사의 말씀인도와 교구장의 교회 및 교구소식 전달, 2부에서는 단기 선교팀을 이끌 지역장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고 지역모임을 자율적으로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지역장들에게 말씀을 준비시켜 십자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사도로 훈련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단기 선교에 가서도 말씀을 은혜롭게 준비하여 인도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원봉사활동을 더욱더 강화하여 각 여전도회와 남전도회가 돌아기면서 우리의 담당 구역을 청소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전도회원들은 4교구가 담당하는 화단을 가꾸기 위하여 자원하여 나무를 심고 일 년 동안 물을 주고 가지를 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구 내에 있는 각 여전도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전도 활동을 교회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디아 전도회와 에스더 전도회가 연합하여 사초구 관내에 있는 민자지방병원 분류심사원을 매주 방문하여 병과 청소년들과 상담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전도하는 일, 매주 중대 부속평원을 찾아가 환자들에게 일대일로 복음을 전하고, 부천동 공무방 청소년 방문전도, 영동포 노숙자 구제 활동을 실시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눅 19:10)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또 다시 우리 교구 식구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대학 16팀 선교후기

우리가 뿌린 조그마한 씨앗들을

팀에 늦게 합류하여 부담이 있었지만 걱정보다는 기도와 중보로 내가 죽으니, 나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을 지난 선교보다 더 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 팀은 B조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역으로 선교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곳에서 더욱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가 전하고 온 복음으로 저들이 변화되게 해 주세요. 믿지 않겠다고 말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을 바로 알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가 전하고 온 복음의 씨앗은 작고 미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씨앗을 키워 주셔서 창대케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그 땅의 영혼들을 잊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곽현우 (대학부)

우리가 만난 영혼들이 아직 우리가 전하는 말과 전도지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혹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써 씨앗을 뿌렸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했지만 언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주었다. 우리가 뿌린 조그마한 씨앗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건 오직 하나님일뿐... 그 땅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소서.

홍성은 (대학부)

하나님은 사역기간 내내 말씀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라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 받을 만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기에 은혜였다고. 하나님은 내전의 상처로 온전히 못한 어린이아들을 보시며 나의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한 모습들을 보게 하셨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나의 죄를 씻기어 온전케 하시고 자녀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더 신뢰하게 될 때 그 나라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বু어 주셨다. 죄인인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다.

이선민 (대학부)

집집마다 신심이 세워져 있고 어더를 가나 불쌍을 만드는 가게들을 볼 수 있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 주고 사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계획 역시 내 뜻과는 달랐다. 어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한 영혼들, 목자를 잃은 방황한 영혼들을 보며 주셨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셨다. 가는 곳마다 누더기 옷을 입고 구걸하는 어린이아들을 만났지만,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 외엔 아무 것도 없었다.

김희진 (대학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로 ③

“이제 나의 인생은 없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천주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남편인 나에 대한 배신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에서 돌아올 때마다 욕을 하며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라. 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택하든지!” 그러자 아내는 그래도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당선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에 더 충격을 받아 3개월 동안 따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술을 더 많이 먹으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싫어서 아내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아내가 찾아 와서 저를 설득을 하자 저도 모르게 아내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제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 동안 아내에게 했던 못된 일들이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제가 힘들게 할 때마다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웃는 아내의 모습이 저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어느 날 천주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도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란 말씀이 저의 마음을 깨트렸습니다. 그 날 저는 집으로 가는 동안에 저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동안 잘못

된 저의 삶이 싫어 주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마음 속에 오셨습니다. 이후 천주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는 저의 삶과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가고 있는 고교의 친구들과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커다란 점이 되어버립니다.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진인 신교사 준비생)

복음의 빛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툰 언어지만 현지인들에게 전도지를 읽고 또 읽어주었을 때 먼저 믿은 우리보다 더한 영혼에 대한 욕망이 그들에게 있음을 그들의 표정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신 택한 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그들은 우리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반가이 맞아 주었고 복음을 전할 때 ‘아멘’하며 영접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 곳으로 우리를 인도 하셔서 이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움직이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도를 받은 한 자매가 그 자리에서 어린 살려계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땅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세력들이 이 자매를 통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 때문에 이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그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김송자 (권사, 3교구)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5월 23일(월) - 5월 31일(화)	11교구 3지역	장경수	5월 24일(월) - 5월 31일(화)	외선부1	김현배
5월 23일(월) - 6월 2일(목)	3교구 1지역	최하늘	5월 25일(수) - 6월 3일(목)	2교구 7지역	정용희
5월 23일(월) - 6월 2일(목)	14교구 5지역	김민현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5월 17일(화) - 5월 26일(목)	5교구 7지역	전준호	5월 17일(화) - 5월 26일(목)	10교구 2지역	정영환
5월 17일(화) - 5월 26일(목)	9교구 5지역	강화성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세상을 흔드는 가슴 아픈 영혼의 실음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빛으로 가득한 성령의 불에

한층의 재로도 남지 못하는 우상들의 허상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권능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분노의 불꽃을 사그라지게 하시고

욕실의 입술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사도행전 17장 24-31절을 읽고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 자신을 먼저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 주님. 그분은 저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게 아니 하셨습니다. 저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어리석고 단순한 저의 마음보다 오히려 강한 쪽은 주님이 아니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 가운데 이 일을 행한 것이라고 제 마음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가슴 아파하며 원망하던 저의 한 없는 교만을 보게 하시며 한 없이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나 또한 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지내왔는가. 정말 괴로와 주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초라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과 인도에 따라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진정한 그 분만을 신뢰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후회전도와 노방전도를 하게 하신 그분의 역사를 다시금 회상하며 내 마음을 잔잔한 은혜로 채워봅니다.

강진우 (청년1부)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5월 9일(월) - 5월 16일(월)	9교구 4지역	정지모	5월 12일(목) - 5월 20일(목)	3교구 3지역	허만신
5월 10일(화) - 5월 18일(수)	3교구 6지역	정창수	5월 12일(목) - 5월 21일(토)	8교구 7지역	전성욱
5월 10일(화) - 5월 19일(목)	22교구 5지역	정운환	5월 13일(금) - 5월 21일(토)	16교구 3지역	이성범
5월 10일(화) - 5월 19일(목)	10교구 4지역	조영환	5월 13일(금) - 5월 21일(토)	16교구 추가1	구형희
5월 11일(수) - 5월 19일(수)	14교구 4지역	김수연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나는 7년 전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해마다 MRI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번 MRI 검사를 하러 가던 도중 얼마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셨다.

"인척아, 만약에 종양이 재발했다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또 고쳐 주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안 고쳐 주시면 어떻게 할래?"

"그래도 믿고 기도하면 고쳐 주시겠지요."

"그런데 처음 수술하고 몇 개월났을 때는 예수님이 엄마에게 데려다 주셨는데, 이번에는 안 데려다 주시면 어떡하지?"

"나야 천국에 가니까 좋겠지요. 그런데 엄마가 걱정이에요. 엄마는 내가 보고 싶으니까 슬프시겠네요."

결국 종양이 재발해서 나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천국은 어떨까? 정말 병도 없고, 슬픔도 없을까?' 하면서 더욱더 천국을 그려보았다.

처음 병원에 입원한 날 링거를 달고 CT랑 MRI도 찍고 진찰도 받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계속 MRI를 찍기만 하고 치료를 안 해서 내 병이 심해진 줄 알았다. 다른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종양이 2개라고 했는데, 이 병원에서는 종양이 3개라고 하셨다. 노발리스 치료(특수 방사선 치료)를 받는 첫날 나는 어떤 느낌인지, 두려웠고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그 때마다 기도를 하였다. 치료를 받을 때는 얼굴에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얼굴이 담담하고 힘들다. 노발리스 치료는 아무 느낌도 없지만 치료를 받을 때마다 두렵다. 나는 그 때마다 기도를 했다. 나는 밤마다 핸드 모르게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두 달 가까이 치료 끝나고 퇴원할 때 무사히 치료를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병원에 있으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면서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와야겠다고 다짐했다.

임인희 (소년부)



"인척이는 7년 전 처음 뇌종양이 발견되어서 수술했다. 이후 다시 재발했지만 오히려 걱정하는 어른들을 위로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이다."

알렐루야!

안녕하세요? 초등부 교사 기하경입니다.

제가 초등부 교사를 한 지 벌써 3년째 되네요. 정말이지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몰라서 내가 담당하게 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면 अच्छ이나? 어떻게 하면 진해시킬 수 있지? 말쑥을 어떻게 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간식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 등등 주마다 이런 생각들을 애 가며 시작했던 교사 봉사가 이렇게 3년째 접어들었다는 것에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 동안 아이들을 맡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나이의 많고 적음이 믿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나이가 열 살 이상 어린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그 맑고 투명한 영혼은 어느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고 겸손의 자세도 배웠으며 그들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마냥 철부지 같고 농기를 좋아하는 그들이지만, 그 내면에는 진실되고 온전한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이 제가 그동안 교사로 있으면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목사님과 여러 초등부 선생님들과 각 과장님들 총무님, 부가집사님 정말 감사하고 부족했던 저의 모습에도 책망하시지 않고 감싸 주시고 도와 주셨던 분들께 직접 말로는 전해 드리지 못해 이렇게 편지로 전해 드립니다.

호주에 가서도 초등부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초등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후회와 절망에서 기회와 기쁨, 빛으로

지난 1월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막연히 결정한 도전 아닌 제도전...

모태신앙이지만 타율적인 신앙에 익숙해서 신앙적으로 너무 연약했다. 아니, 내 스스로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단지 부모님께서 교회라고 하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던 나였기에,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일 년쯤이야!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하지만 막상 학원에 입학하고 보니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사람이라곤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너무 외로웠고, 후회도 많이 했었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더욱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다. 대학부로 나를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한 지체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내셨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 나셨다. 대학부 지체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나를 붙들었고, 이번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단 두렵잖네.'란 말씀을 마음 속에 간직하며 살면서도 너무 낙담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사랑을 잊고 외로움과 두려움 앞에서 뒤흔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결국 또 다시 사람들을 찾아 나셨다. 누군가에게 모든 고민을 털어 놓아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 대상이 달랐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 나셨다. 대학부 지체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나를 붙들었고, 이번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다. 나에게 제도전이란 '기회'를 통해서 '후회'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을 주신 것도 모두 주님의 뜻이었던 것을... 너무나도 약하고 세상에 대한 열망도 없이

세상에 깊이 빠져 헤아 나올 수 없었던 나를 많이 사랑하시기에 나를 그냥 둘 수 없으셨기에 주님을 더욱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것... 지금 나는 기쁘다. 세상이 밝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 보인다. 그렇게 '두렵고, 무절단' 학원이 '전도의 황금어장'으로 보이게 시작했으니 말이다.

하나님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 우리를 키우신다. 지금 입시라는 세상의 시험 속에서, 학업이라는 세상의 지식 앞에서, 취직이라는 세상의 문턱 앞에서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는가? 지금의 모든 절망과 슬픔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려고, 풀무질을 통해 새롭게 연단하시는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의지해 보자. 주님께 더욱 다가가 보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자. 저기 저 멀리서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주님께서 '빛, 기쁨과 기회'로 변화시키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서동욱 (대학부)

교회 탐방 65 제1교육위원회 교사들

“어린양을 먹이라”

우리 교회는 전교인권을 양생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정해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교인권으로 자라갈 귀한 영혼들을 말씀의 품로 먹이고 있는 제1교육위원회 소속의 교사들을 만나보았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혜선, 초등부)

매주 공부할 말씀을 구역예배나 설교를 통해 많이 묵상하고 부서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본문을 배운 후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민선, 소년부)

유아부 5살만 아들은 어리기 때문에 시각 교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공동적으로 설명해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문의 맥락을 전달합니다. (이예선, 유아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 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윤숙희, 중등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을 강조합니다. 학원 전도 중 사명리를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직접 전도하러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신태웅, 유년부)

—교사로 지내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자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하시는 어머니께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셨고 전해주기도 하시고, 어떤 아이는 상처가 나 있는 데 영적 기도를 부탁해서 영아가 기도했더니 바로 반창고를 떼어 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순순한 믿음은 통해 많이 배우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예선)

저는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을 많이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심방 중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많이 변했는데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년 아이들을 통해 한두 가정전도는 전도를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강소영, 유년부)

교사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성장해 함께 봉사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선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윤숙희)

말씀쟁이 아이가 매우 울며 기도합니다. 지금 빠르게 성장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의 찬송이 절로 납니다. (오혜선)

학원전도 중 학교 선생님에서 불러 주셔서 한 학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10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감사드립니다. (여민선)

5~6년 전에 어떤 장예우를 맡았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분반 공부 진행이 어려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 사랑해요!’

는 고백밖에 하지 못했지만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 아이를 배려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신태웅)



—교사로서 현재 기도제목은 무엇입니까?

영아부에서 2년 동안 배운 말씀이 평생 아이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길, 또 아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기도합니다. (강 소, 영아부)

중등부는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사순기를 믿음으로 잘 지내길 기도합니다. (윤숙희)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최악에 몰들어가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만났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여민선)

교사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 헌신했던분 주일에 빠져 아이들을 교사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강소영)

우리 반의 모토는 ‘복음 위에 굳게 선 사랑남’입니다. 외적인 경건보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예선)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시는 영아부 부모님들 중에서 영아부로 오지 않고 아이와 함께 대배배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아부(생후 만달부터 2세까지)가 결보기에 소란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영아부가 어떤 부서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부모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 소)

유치부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데 엄마들께서 많이 동반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유치부에 맡겨 주십시오. (강소영)

없는 양을 찾기 위해 부모님들과 교구의 협력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새겨지도록 교회의 모든 기관이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태웅)

전도를 해도 집이 멀어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외외로 많습니다. 각 구역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오혜선)

각 부서에서 각각의 역할로 주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을 먹이는 교사들을 만나니, 배드로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편진실)

다음 주일 찬송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 찬송의 처음 제목은 ‘십자가와 군기를 들고 행진하며 부르는 찬송(Hymn, for procession with Cross and Banners)’이라 불렸다. 윌리엄데이에 바랑골드 목사(Rex, Sabine baring - Gould, 1834~1924)가 행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작사했고, 아더 쉐리번(Arthur Sullivan, 1842~1900)이 1871년에 작곡하였다. 가사는 작곡대무사 2장 3절의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까니 내는 말씀을 외치리라.’

1절은 모든 믿는 사람이 십자가 군병으로서 앞서 가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말한다. 그 군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친히 영적 전투 현장을 함께 계시며, 친히 싸우심을 논한다.

후렴은 십자가 군병으로서 예수그리스도를 노래. 모든 성도들은 완강해서 나가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할 것을 말한다.

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힘차게 전승을 하며 싸울 때, 원수 마귀는 겁에 질려 쫓겨 나갈 것을 찬양한다.

3절은 주가 모든 교회를 지키시기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 나라는 멸망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며 주의 의복을 입고서 싸우기를 찬양한다.

4절은 이 불리온 권세를 받은 주의 백성 주의 군대가 함께 주님이 주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영원토록 주의의 권세를 찬양할 것을 말한다.

모든 믿는 사람은 주의 십자가 군병이다. 군사로 정장한 주의 백성은 자기 생활에 엄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교회를 따라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십자가로 이미 모든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갈 때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18	김현숙	19	고등부	유영준(2)	1437	박현숙	19	중등2부	함윤재(2)	1456	보안비대	19	외선부	박옥순(12)
1419	김원주	2	청년1부	신성욱(2)	1438	손은성	19	중등2부	이호영(1)	1457	이배영	14	청년1부	이혜숙(14)
1420	이순선	2	청년2부	박성대(2)	1439	북복용	17	청년2부	정대태(2)	1458	정현미	4	청년1부	허인숙(4)
1421	최병욱	1	소망부	백영준(18)	1440	김영삼	17	청년2부	이정희(2)	1459	신동일	14	청년2부	정태준(2)
1422	김정숙	16	청년2부	온재현(10)	1441	김윤환	19	청년1부	이형선(4)	1460	김경렬	2	청년1부	유일옥(2)
1423	박빛나	16	청년2부	김진도(4)	1442	김순선	17	청년3부	박영준(13)	1461	최윤정	5	청년1부	김지현(5)
1424	정지우	4	청년2부	김희자(2)	1443	사진숙	19	청년1부	김정순(2)	1462	김유주	19	외선부	이선숙(12)
1425	이예라	8	청년2부	이영준(14)	1444	김소연	19	청년1부	유영현(12)	1463	보우규	19	외선부	김영희(12)
1426	김윤진	7	청년2부	최희영(2)	1445	이윤자	13	소망부	신정영(4)	1464	문규	19	외선부	고미연(4)
1427	김현호	15	청년2부	김봉재(2)	1446	김영진	12	소망부	이보숙(2)	1465	호세	19	외선부	전순준(11)
1428	박석선	16	청년2부	김경희(2)	1447	김원나	12	소망부	김정희(2)	1466	로하리	19	외선부	구영자(2)
1429	오영순	8	청년3부	한희영(2)	1448	김준자	13	청년2부	김재현(13)	1467	헛트트	19	외선부	신명애(2)
1430	이훈자	8	소망부	한진숙(2)	1449	박종현	1	청년1부	안정재(1)	1468	라리시	19	외선부	김종옥(11)
1431	김재현	19	중등부		1450	김현주	19	청년1부	한정영(16)	1469	방건호	19	대학부	정혜실(14)
1432	배성우	19	중등2부	김희자(2)	1451	이갑자	2	청년2부	강태연(2)	1470	유금복	19	청년1부	박진연(2)
1433	김광우	19	중등2부	왕성원(1)	1452	김진도	6	청년2부	박종현(2)	1471	이현우	19	대학부	이원정(2)
1434	이예진	19	중등2부	신영애(16)	1453	황서민	19	외선부	박미연(11)	1472	루보트	19	외선부	장선재(11)
1435	박기은	19	중등2부	김희자(13)	1454	나혜라	19	청년1부	정진실(16)	1473	파르론	19	외선부	박복순(11)
1436	정서하	19	청년1부	이남숙(2)	1455	사연도	19	외선부	김경영(2)	1474	성정일	10	청년1부	이덕일(2)

※ 찬양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임

1. 권사회 전체 월례회
일시: 29일(다음주일) 15:00
장소: 갈릴리홀
2. 권사 34지회 월례회
일시: 25일(수) 수요1부 예배
장소: 갈릴리홀
3. 남면전도부 월례회
일시: 22일(오늘) 15:00
장소: 교육관 501호

별세

1. 김금순 타교집사 (마경자 권사의 모친, 김종만 안수집사의 장모) 11교구 장충1구역/ 12일 별세, 14일 장례

직원모집

1. 모집부문 경भाव직
2. 모집인원 약간명
3. 자 격 세례교인 (만 55세 이하)
4.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인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 (타교인)
5. 서류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출원구현 비서관 552-8200 (#4023)

2. 김순례 태교집사 (조미순 집사의 모친
2교구 논현1구역/ 13일 별세, 15일 장례)
3. 정국진 성도 (경운출 집사의 부친, 이순
자 집사의 시부) 18교구 죽전3구역/ 15
일 별세, 17일 장례
4. 이가우성도 (김경복 은퇴서리집사의 남편
판) 13교구 산곡구역/ 16일 별세, 18일
장례

결혼

1. 김 육근 (1909년 생도, 연세대학교 의과
의사, 1909과 1907과 졸업장 위조/유출한 전
신사, 장안촌 권사의 딸, 1교과) / 24일
14시 15분 감리회결
2. 이준수 군 (이준영 대표권사의 아들, 1교과
와 연보리 딸 (안동현 권사, 장남욱 권사
의 딸, 2교과) / 28일(11) 11:00 해림의 전
달 1층 큰관로분류
3. 황형태 군 (김영민 집사의 아들, 1교과)
와 김민자 딸 (김갑순 권사의 딸) / 28일
(11) 12:00 대방 해림하우스 2층
4. 박진희 군 (한복 권사의 아들, 1교과와 권사의
오장남 이 (장복호 생도, 김교과 권사의
딸) / 28일(11) 13:30 경신교회 분당
5. 김기훈 군 (김갑기 씨, 유순자 씨의 아
들, 19교과와 박수진 딸 (박순자 집사,
박세순 권사의 딸, 7교과) / 28일(11)
14:00 머릿돌교회 분당해림하우스 3층

6. 차재웅 군 (차상우 집사, 염
영애 집사의 아들 18교구)과

◆교사양성부·수요성경공부 증강예배

- 일시 : 5월 22일(오늘) 15:45
장소 : 베다니홀
내용 : 예배 및 수료식

◆2005년도 전반기 총현전도훈련원 수료예배

- 일시 : 5월 25일(수) 13:30
장소 : 베다니홀

◆ 2005년 의료선교의 날

- 일 시 : 5월 22일(오늘) 10:00~16:40
장 소 : 제2교육관 3층(고등부실)
주 관 : 의료선교부, 의선부
한국 한센복지협회 서울지부
대 상 :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과목 : 흉부X선 촬영, 피부질환,
혈액검사(빈혈·간기능·혈당),
진염성 질환(간염검사 등),
소변검사(노당 등), 외과, 내과, 비뇨기과

◆ 단기선교팀장 훈련

- 일시 : 6월 1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2부 예배후
장소 : 본당 112호
(*미수료자는 이번 차수에 전원 수강바랍니다.)

- 조혜진 양 (조승원 씨, 이영희 씨의 딸, 19교구) / 28일 (토) 16:00 코스모타워 3층 (2층서 삼성역 2번 출구)

5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경에서 통치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주십시오.
- ② 출현의 모든 청지기들과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십시오.
- ③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 ④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심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십시오.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출현복지권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십시오.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통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인도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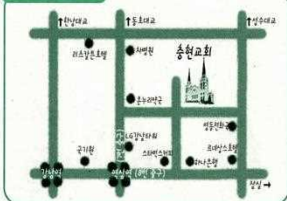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주일)
설교자/기도자	장 훈/노영한	임현덕/허형철	이희식/양효민	최종철/김운섭	하종철/이병두	안치원/전은희	황진섭/김영순

예배담당 안내 (5/25~5/29)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5/25	수요일	주요 열국 비로리 (조선나 찬양대)	위건강	신영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 2:15-11) 안치원 목사
5/26	수요일	십자가에서 (실로암 찬양대)	김진석	김순연	영광계 복 하느님 (골 8:26-30) 최성규 목사
5/27	금요일	소프라노 김연희/여교역사 중장년 아녀 찬양대	안장덕		약할 때 강할 (고후 12:9) 위건강 목사
5/29	주일 I	(예배 전 찬양)	이성진	한승균	진리에 순종하라 (갈 5:7) 최철권 목사
5/29	주일 II	너 예수께 조종하 나가 의 비를라 이강림(멜렌 오케스트라)	이경환	박철규	진리에 순종하라 (갈 5:7) 이창수 목사
5/29	주일 III	이 세상 끝날까지 의 현악중주(주요열과 신진경 외)	고광호	함철구	진리에 순종하라 (갈 5:7) 안치원 목사
5/29	주일 IV	그리스 하나님과 사랑 의 아녀 중장년(지도: 공명희)	정용신	권명호	진리에 순종하라 (갈 5:7) 이희식 목사
5/29	주일 V	구름 같은 이 세상 의데너 이강림(멜렌 찬양대 솔로리스트)	윤승인	조종환	진리에 순종하라 (갈 5:7) 최철권 목사
5/29	주일찬양	장년부 중장년/실로암 찬양대	양재복	박상대	참된 믿음이란 (막 2:14-16) 어극근 목사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주 일예배	I	오전 7:00
	II	오전 9:00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금요일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철야	오후 11:00	금요일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로

이진호	최은호	노정현
국악전공	국악전공	음악과
염영성	이 훈	남남우
국악전공	국악전공	음악전공
최무기	김효주	차신득
기악전공	기악전공	기악전공
안종욱	임민정	이경태
국악전공	국악전공	기악전공
이정우	김단율	이재현
국악전공	국악전공	국악전공
김민기	원용철	이형수
국악전공	국악전공	국악전공
강구형	최윤진	이계인
국악전공	국악전공	국악전공
전도현	박국영	김민욱
국악전공	국악전공	국악전공
김경달	이철호	최희준
국악전공	국악전공	국악전공
정청길	신수진	고재훈
국악전공	국악전공	국악전공
이달욱	장정현	김승곤
국악전공	국악전공	국악전공
정선현	김민정	김건영
국악전공	국악전공	국악전공
임양식	김은진	전학래
국악전공	국악전공	국악전공
김형문	장국영	전은비
국악전공	국악전공	국악전공
송두심		

■ 부목사

이주대 연출가 50대	전현민 연출가 40대	박인기 연출가 40대	류병희 감독 40대	김영훈 감독 50대
이정준 연출가 50대	안영환 대우 40대	나광영 10대	정진호 10대	김용득 10대
고효환 연출가 50대	위지랑 감독 40대	김익환 10대	장 훈 10대	임영민 10대
이희식 연출가 50대	최종철 10대	하종철 10대	안지민 10대	정종순 10대
양재용 연출가 50대	이성진 10대	조규호 10대	최성규 10대	이재영 10대
이정준 연출가 50대	이창수 10대	김윤호 10대	윤수일 10대	황정진 연출가 40대
정영진 연출가 50대	이정훈 연출가 50대	김태석 연출가 50대	김성훈 연출가 50대	

■ 여전도사

정영진 연출가 50대	신동자 10대	윤운식 10대	한영준 10대	김연식 10대
홍순애 연출가 50대	이우주 10대	김말자 10대	안태순 10대	김정민 10대
조지우 연출가 50대	강덕필 10대	최복심 10대	전은희 10대	김영준 10대
김진자 연출가 50대	이수경 10대	김경희 10대	이복순 10대	류진희 10대
한상일 연출가 50대	임태주 10대			

■ 천영감독 강기주 ■ 전일지휘자 서운성

■ 전일독학자 김소연

■ 선 고 사 송윤호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Ⅲ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